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6. 5. 2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거룩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에도

코러스 나 나나 나나나나
나 나나 나나나나
나 나나 나나나나
나 나나 나나나나 x2

브릿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히브리서 10장 22~25절

다 같이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매일매일 규칙적인 계획 아래 하루를 살아가려 해도 이를 계획대로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삶 곳곳에 굳은살처럼 박혀 있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입니다. 미디어의 유혹,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기력함,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불평으로 가득 찬 병든 마음 등 나쁜 습관은 아무리 결심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습관에는 무서운 힘이 있어 한번 길들여지면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반면 나쁜 습관은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플러스 습관과 마이너스 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습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이웃에게도 유익한 것이지만, 마이너스 습관은 나에게 영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피해가 되는 습관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일종의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마이너스 습관은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또 거룩한 습관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내가 보고 듣고 접하는 환경을 바꿔야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서서히 굳어져 버린 일상의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기에 일상의 중독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나쁜 습관에 대한 모든 접근 가능성을 차단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던 모든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에는 내 영성을 어떻게 하는 습관이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전반부를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는 내적 정결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적으로만 씻김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심령까지도 변화된 내적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점검하여 악한 습관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내 마음을 지켜 내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 내시는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내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을 바꿔야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고 사랑하는 것을 향해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가 곧 우리가 사랑하는 바이기 때문에 문제는 당신이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참마음'은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로포리아 (plerophoria)'는 그 양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넘치는 믿음을 지칭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넘치는 믿음을 가지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24절 말씀처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이 식어가고 악행이 만연하는 세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사랑과 선행의 일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함께 모여 거룩한 습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일 우리의 일터에서 '홀어저서' 드리는 예배,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옵니다. 따라서 모든 일, 심지어 단순하고 작은 임무도 영원한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은 바로 매일의 일상, 그 단조로움 안에 있습니다. 가장 하찮은 것에서조차 거룩한 습관을 행하지 못한다면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것이라도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고 행하며 나아가면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삶이 경건의 장소, 거룩한 제사,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거룩한 연대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는 길임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 믿음을 지켜 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악한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주며 뜨거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각자도생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살려 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갓 그리스도를 믿은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여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하고, 그 경건이 있는 신앙생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지속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성장해 나가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습관”은 무엇인가요? 미디어, 게으름, 불평, 미움, 시간 낭비 등 내 마음과 생활을 흐리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3. 우리 가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1.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도록
2.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3.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 되도록
4.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5.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습관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습관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